



南北정상 오늘 두차례 회담 평화체제·경협·통일 논의

‘평화선언’ 채택 가능성 ▶3·4·5·7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일 오전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분단의 상징이자 ‘금단의 선(線)’이었던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넘어 방북했다.

남북한 정상의 만남은 지난 2000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방북 이래 7년4개월만이다.

노 대통령은 평양 도착 직후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영접을 받았다.

두 정상은 열은 미소를 띠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눴고, 포옹과 차량 동승 등 과거이 넘었던 2000년 6월 남북 정상간 첫 만남 때와 달리 12

분여의 환영식 동안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격식을 갖췄다.

노 대통령은 방북 이틀째인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과 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공동선언, 한반도 평화, 화해와 통일을 주제로 평화체제 구축방안과 경제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두 정상은 회담 결과에 따라 ‘평화선언’ 형태의 합의문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2일 오전 전용차편으로 청와대를 떠나 1시간여 만에 군사분계선 앞 약30m 지점에 도착해 하차한 뒤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오전 9시5분께 걸어서 MDL을 넘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평양~개성간 고속도로를 달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평양에 도착했으며, 도착 직후 북한 동포와 평양 시민에게 전하는 인사말을 발표하는 것으로 2박3일간의 방북 일정에 들어갔다.

노 대통령은 북한동포와 평양시민들에게 전하는 서면 도착성명을 통해 “이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이 땅에 평화의 새 역사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무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헌법상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동승해 인민문화공원에서 4·25문화회관까지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이례적으로 무개차 퍼레이드를 벌였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평양시 연도에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나와 손에 든 붉은

색과 흰색 ‘꽃송이’를 흔들며 “우리는 하나” “만세 만세” “조국 통일” 등을 연호했다.

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건너기 직전 밝힌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이 걸음(군사분계선을 넘는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평양 공식 환영행사 직후 백화연 영빈관으로 이동했다. 오후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수대 의사당에서 면담을 갖고 1시간여 동안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목란관에서 마련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평양=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반갑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북한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낮 평양시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신당 경선 중단... 파국 위기

부정선거 논란으로 합동연설회 일정 취소

조직·동원선거 논란으로 대통령후보 신민당의 국민경선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조직·동원선거에 대한 경선 후보들의 합의 도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대통령 민주당의 경선은 좌초 위기에 빠졌다.

〈관련기사 6면〉

2일 대통령민주당 지도부는 정동영 후보 측의 조직·동원선거에 항의하며 경선 중단을 요구한 손학규, 이해찬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예정된 전주 합동연설회와 3일로 예정됐던 인천 합동연설회를 취소하는 등 경선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오종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동원선거 의혹, 유사 콜센터 운영, 대통령 명의의 도용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자 간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후보 합동연설회 등을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소속 의원은 엄중 징계할 방침이며 선거운동 위원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대처할 것”이라며 “후보자들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당 지도부는 대선 승리를 위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변인도 이날 “오늘과 내일로 예정된 전북과 인천 합동연설회는 중단된다”고 밝힌 뒤 “그러나 6일 대전·충남·전북 경선과 7일 인천·경기 경선은 예정대로 치를 방침이며 모바일 투표 점수 등의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정동영 후보 측은 “사실상 당헌 쿠데타며 경선 불복을 공인해준 사태”라며 강력히 반발, 경선 판이 깨지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해찬 후보 측은 김형주 대변인은 이날 불법 콜센터 운영과 관련, 정 후보 측 경선대책위원회를 해당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고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북정상회담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편안한 세상, 仁宇

(주)인우
 INUO LUBRICANTS

대표이사 채승석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7-3
 케이원하이빌 2층 208호
 Tel : 385-7071-3 Fax : 385-7074

우람한 힘, 장막 70년 역사와 전통

공인된 시험은 명문대학입니다

남부대학교
 http://www.nam.ac.kr

남부대학교 1000-0114 T. 062-270-1111

세상을 밝히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jinam.ac.kr

진남과학대학 1000-0114 T. 062-270-1111

빛나는 미용품

LANEIGE